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들의 기억의 순례는 아주 은밀하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해방의 나라를 순례하고 있다.
- 질문: 너희들이 물질 세계의 주민에서 서틀 리전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 대답: 서틀 리전의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봉사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너희들의 뼈까지 바치지 않고는 천사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천사들은 살이나 뼈가 없기 때문이다. 다디치 리쉬가 한 것처럼, 이 무한한 봉사에 너희들의 뼈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오직 그래야만 몸을 가진 너희들이 미묘해질 것이다.
- 노래: 오, 마음이여, 인내하여라! 너희들의 행복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옴 산티. 너희 자녀들은 이 노래에서 참을성을 가지라는 신호를 받았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슈리마트를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이 자기가 이 은밀한 기억의 순례 길에 있다는 것 역시 안다. 다른 순례들은 각기 때가 되면 끝나야 한다. 이 순례의 주된 것은 너희들 외에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른다는 점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순례를 떠나야 하고, 또한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판다바 군대라고 불려 왔다. 너희들은 지금 순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은밀하다. 이 순례 역시 매우 은밀하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얻을 것이다. 이것 역시 순례다, 그렇지 않으냐?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경전의 핵심을 말해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 영혼들은 니르바나의 우리 나라로 순례를 가야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알 수 있다. 이것은 해방의 나라로 가는 참된 순례다. 모든 이들이 해방의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 이 순례를 하려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해방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오직 그의 때가 되어야만 스스로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와서 설명하면, 너희 자녀들은 이것이 이제까지 기억되어온, 진정으로 참된 순례라는 확신을 가진다. 신이 우리에게 이 순례를 가르쳤다: 만마나바브! 마디야지바브! 이 단어들은 너희에게 매우 유용하다. 유일한 실수는 누가 그것들에 대해 말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한다: 너희들의 몸과 모든 몸의 관계들을 잊어라. 이 사람(브라마 바바)도 또한 몸을 갖는다. 자신의 몸을 갖지 않은 이는 다른 분인데, 그가 이 사람에게도 역시 설명해준다. 저 아버지는 형상이 없다(비치트라); 그는 자신의 형상을 갖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모두 형상(치트라)을 가진다. 온 세상이 갤러리(화랑, 형상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다. 사람의 형태는 형상이 없는 이와 형상 그 자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즉 살아 있지 않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다. 저 아버지는 형상이 없다. 그가 자신이 이 형상(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마하바라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이 이 말을 했다고 경전에 쓰여 있다. 그는 라자 요가를 가르쳤고, 틀림없이 왕국이 세워졌다. 지금은 왕국이 없다. 신은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라자 요가를 가르쳤는데, 왜냐하면 파괴가 바로 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천국이 세워지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된다.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세워졌다. 지금 너희들의 지각에는 그때는 황금시대였고, 지금은 철시대라는 것이 들어 있다. 아버지가 지금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너희들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지고의 지역에서 왔다는 말을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오직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만이 브라마를 통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다. 다른 이를 통해서는 그가 이 말을 할 수 없다. 서틀 리전에는 오직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뿐이다. 그는 미묘한 브라마이고, 이 사람은 몸을 가진 브라마라는 것 역시 설명했다. 너희들은 지금 천사가 되고 있다. 물질 세계에는 천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을 갖지 않는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 영적인 봉사에 뼈 등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된다. 지금 현재 너희에게는 뼈가 있다. 어떤 이가 봉사에 자신의 뼈까지 내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뼈까지 완전히 바쳤다는 의미다. 물질 세계의 주민에서, 너희들은 서틀 리전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뼈를 내어주고 나서 미묘해진다. 이 봉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기억 속에 머물면서 우리는 천사가 될 것이다. "사냥꾼에게는 죽음이, 사냥꾼에게는 기쁨이"라는 말도 기억되어 왔다. 천사들은 사냥꾼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사람에서 천사들로 바뀐다. 너희들은 신인이라고는 불릴 수는 없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몸을 가진다. 서틀 리전은 지금 이때에만 설명된다. 너희들은 요가에 머물며, 천사가 된다. 마지막에, 너희들은 천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비전으로 볼 것이며, 또한 행복을 가질 것이다. 인간들은 모두 죽음 앞에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 중 마하비르들은 흔들림 없이 머물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파괴의 장면들은 일어나야만 한다. 아르주나는 비전으로 파괴를 보았다. 이것은 한 명의 아르주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파괴와 수립의 비전들을 준다. 맨 처음에는, 바라도 파괴의 비전을 보았다. 그 당시에 그에게는 이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는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4개의 팔을 가진 형상(비슈누)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 즉 파괴 뒤에 우리가 세계의 주인들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는 행복해졌다. 세상은 파괴가 좋다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참으로 많은 협의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파괴는 일어나야만 된다. 사람들은 정화자를 기억하고, 그에게 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연히 아버지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가 통치할 순수한 세계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좋다, 그렇지 않으냐? 사람들이 왜 정화자를 기억하느냐? 그들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신인들은 순수한 세계에 존재한다; 그들은 불순한 세상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불순한 세상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거대한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 역시 기억된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종교가 수립되었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여기에서 라자 요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괴가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바라트에 남을 것이냐? 라자 요가를 공부하고 지식을 주는 이들이 남을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 겁낼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정화자에게 와 달라고 소리쳐 부른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오면 그들은 행복해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악덕에 빠지지 말아라. 이 악덕들을 정복하여라, 아니면 그것들을 기부하여라, 그러면 일식이 사라질 것이다. 바라트를 덮고 있는 일식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추한 데서 아름다워져야 된다. 순수한 신인들이 황금시대에 살았다. 그들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너희들은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악덕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신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은밀하다.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너희들은 주권을 얻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들은 보통사람에서 나라안으로 변해야 된다. 너희들은 1초 만에 왕국을 받을 수 있다. 초창기에는 일부 딸들이 황홀경에 들어가서, 4~5일씩 천국에서 머물곤 했었다. 쉬브 바바가 와서 너희 자녀들에게 천국의 비전을 주곤 했었다. 신인들이 아주 많은 자부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오곤 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려고 은밀한 방식으로 온 분이 정말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진심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는 브라마의 몸에 들어온다. 브라마의 몸 역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서 수립이 일어난다. 바바는 너희들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설명해주었다: "당신들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브라마 쿠마리들에게 왔습니다. 앗챠, 전에 브라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에게 속한다. 우리는 틀림없이 전에도 그에게 속했었다. 수립은 브라마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브라민들이 필요하다. 브라마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슈드라들에게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 브라민들은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쉬브 바바는 브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다. 아주 많은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 있다. 아주 많은 센터가 있다. 그 모든 센터에서 브라마 쿠마리들이 가르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 신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친다. 그는 무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식을 말해준다. 모두가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들이다. 우리들은 프라자피타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다. 쉬브 바바는 다다(할아버지)이다. 그가 우리들을 입양했다. 너희들은 우리가 브라마를 통해서 다다에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락쉬미와 나라얀은 둘 다 천국의 주인들이다. 오직 가장 높은, 무체인 한 분만이 신이다.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아주 잘 훈습해야 한다. 제일 먼저, 신봉의 길에서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두 분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라. 천국에서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한 분뿐이다. 팔로κ 아버지에게서 너희들이 이미 주권을 받은 뒤인데, 왜 그를 기억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를 기억해야 할, 그런 슬픔이 거기에는 없다. “오, 슬픔의 제거자여! 행복의 공여자여!”라는 노래가 불린다. 그것은 지금 이때에 대한 것이다. 과거가 된 것은 무엇이든 나중에 기억된다. 단 한 분만이 찬양된다. 그 아버지가 와서 불순한 이들을 정화한다.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앉아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글로 쓴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가 정말로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주권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84생의 사이클을 돌아왔고,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다음, 너희들은 21생 동안 통치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신인들이 될 것이다. 지난 사이클에도 역시 너희들은 그렇게 되었었다. 너희들은 너희가 84생의 전체 사이클을 돌아왔다는 것을 안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 황금시대와 은시대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묻는다: 전에 우리가 몇 번이나 만났느냐?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냐? 새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틀림없이 84생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처음에 오는 이들에게만 완전한 사이클을 가진다. 모든 것을 지각으로 계산해야 된다. 바바, 저는 이 건물 안에서 이 옷을 입은 채로 당신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순한 데서 계속 순수해졌고, 순수한 데서 불순해졌다. 어떤 것이 끊임없이 새 것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반드시 낡게 된다. 모든 것이 사토, 라조, 타모 단계를 거쳐야 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지옥이다. 저것은 순수한 세계다. 많은 사람들이 “오 정화자여! 오셔서 저희를 정화해 주소서!”라고 소리쳐 부른다. 슬픔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숭배받을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들은 동시대에 숭배자가 되었다.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계속해서 왔다. 우리는 진정 불순한 데서 순수해졌고, 순수한 데서 계속 불순해졌다. 이 연극의 배경은 바라트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의식을 찾았고, 지금 쉬바의 탄생일을 축하한다. 다른 아무도 쉬바를 알지 조차 못한다. 우리들은 그를 안다. 그는 우리에게 정말로 라자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천국의 수립은 브라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요가를 공부하고 있으며, 수립을 수행할 이들은 틀림없이 왕국의 행운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에게서 사이클마다 이 라자 요가를 공부한다”라고 말한다. 바바는 84생의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이클을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사이클을 알아야 한다. 이 그림들이 없더라도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다. 바라트는 진정으로 천국이었고, 지금은 지옥이다. 단지 저 사람들이 아직도 철시대가 유년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이 철시대의 끝이라고 말한다.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불순한 세상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왔다. 너희들은 우리가 순수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해방의 나라와 해방된 삶의 나라,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 그리고 슬픔의 나라 역시 안다. 그러나 그들의 행운이 아니라면, “왜 내가 행복의 나라에 가지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저 평화의 나라는 진정으로 모든 영혼들의 집이다. 거기에서 영혼에게는 신체기관이 하나도 없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는 평화를 받는다. 황금시대에는 종교가 단 하나뿐이다. 이 세계 드라마는 영원하며 불멸한다; 그것은 계속해서 돈다. 영혼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모두 평화의 나라에 잠시만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철시대는 슬픔의 나라다. 무수한 종교들이 모두 있고, 참으로 대단한

격동이 있다. 완전한 슬픔의 나라가 되면, 그때 아버지가 온다. 슬픔의 나라 다음에는 완전한 행복의 나라다. 우리들은 평화의 나라에서 행복의 나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슬픔의 나라가 된다. 황금시대의 사람들은 완전히 악덕이 없는 반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악하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아주 쉽다. 용기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어디에든 가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하누만이 영적인 집회에 가서 뒤쪽에 신발들 가운데 앉아 있곤 했다고 쓰여 있다. 용맹스러운 전사인 이들은 어디에든 갈 것이고, 다른 이들의 말을 외교적인 수완으로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웃을 갈아입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어디든 가도 좋다. 바바도 또한 너희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유익을 주고 있다. 사원 등에 초대를 받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서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나날이 너희들은 더 영리해지고 있다. 너희들이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야 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봐야 한다. 산야시들과 왕들이 마지막에 왔다는 것이 기억된다. 자나크 왕은 1초 만에 삶 속의 해방을 받았다. 그 다음 그는 은시대에 아누 자나크(미래에 자나크가 될 자)가 되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잊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마지막 파괴의 장면들을 보려면, 마하비르처럼 두려움 없고 흔들림 없는 단계를 만들어라. 다른 이들이 모르는 은밀한 방식으로 기억의 순례에 머물러라.
2. 서틀 리전의 거주자인 천사가 되려면, 다디치 리쉬가했던 것처럼, 무한한 봉사에 너희들의 모든 뼈를 바쳐라.

축복: 첫 번째 슈리마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쉬운 요기가 되어 너희들의 기반을 강하게 만들어라.

밥다다의 유품가는 슈리마트는, “너희 스스로를 영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여라”이다. 너희 스스로를 영혼이라고 여기지 않고 평범한 육신의 존재라고 여긴다면, 너희들은 기억할 수 없다. 뭔가 두 가지 사물을 결합시키려면 먼저 그 둘을 같게 만드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너희 스스로를 영혼이라고 여기면서 기억할 때, 너희들의 기억이 쉬워질 것이다. 이 슈리마트가 주된 토대다. 이런 측면에 거듭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쉬운 요기가 될 것이다.

슬로건: 너희들의 카르마는 너희가 영혼을 언뜻 일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희의 샤티 형태를 드러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

아비약트 신호: 아비약트의 달인 이번 달에는 굴레 없이 머물며, 삶 속에서 해방된 단계를 경험하여라.

브라민이란 천사라는 뜻이다. 즉, 삶의 굴레에 묶여있는 이들이 아닌, 삶 속에서 해방된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몸의 굴레, 육신의 친척들, 몸에 대한 물질적 소유물들이 없다. 너희들이 몸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끝내면, 그때는 몸에 대한 굴레들과 물질적 소유물들이 자동적으로 끝날 것이다. “해보겠다(try, 코시시-koshish)”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해보겠다”라는 말은 아직도 세상의 유인(카시시-kashish)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해보겠다”는 말을 끝내고 육체의식을 내려놓아라.